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의 <앞-지식문고 시리즈> 첫 책 출간!
문학비평가이자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인 김태환의 '저자 이론' 연구서

『실제 저자와 가상 저자』

내재적 저자론에서 저자의 사회학까지

ISBN 979-11-970854-3-7 03800 144쪽 무선철제본 값10,000원 출간일 12월 10일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께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 | 담당 최하연 (편집주간) 010-4212-0752

저자 이론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서-저자의 죽음 그 이후의 이야기

「누가 말하는가」 「누구에게 소설의 속편을 쓸 권리가 있는가」 등의 논문을 발표하며 소설에서 저자와 서술자의 문제를 연구해온 문학평론가 김태환(서울대 독문과) 교수가 이번에는 대상 범위를 더 넓혀서 책의 저자 일반에 관한 이론서를 출간했다.

1960년대 말 롤랑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푸코가 저자 범주를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구성물로 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자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저자의 기능에 관한 세분화된 논의로 발전하는 동시에 ‘저자의 죽음’ 대신 저자 범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김태환의 이번 저서 『실제 저자와 가상 저자』는 이러한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저자의 구성적 성격과 실존하는 인간으로서의 저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책의 부제로 “내재적 저자론에서 저자의 사회학까지”가 붙여진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으려니와, 이 책은 현대 저자 이론 연구에 진일보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저자는 책을 쓴 인간(실제 저자)인 동시에 그 인간이 죽은 뒤에도 우리가 책을 펼치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어떤 가상의 목소리(가상 저자)이기도 하다. 김태환은 실제 저자와 가상 저자가 이론적으로 구별되지만, 책의 의미는 독자가 두 저자를 동일시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 저자와 가상 저자의 변증법적 상호 작용이라는 모델을 통해 저자의 권위와 책의 의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치 이전과 같은 현상, 익명화의 문제, 서사문학에서 작가와 화자의 분리와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매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자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이 책은 문학을 포함해 글쓰기와 관련된 인문학계와 문화계 전반에서 관심을 기울여 살펴봐야 하는 필독서로서 손색이 없다.

차례

_저자 개념의 특수성과 보편성

_문어 소통의 이론

_저자 구성과 저자 인지

_서사문학과 익명주의의 문제

‘저자’라는 말에 깊은 울림을 불러넣던 전통적인 책의 문화는 끝나가고 있다. 책에서만 얻을 수 있던 많은 것을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파편화된 정보의 형태로 얻고 있다. 무게 없는 전자 신호가 목직인 책을 대체하는 만큼, 문화적 가치의 창조자로서 저자의 존재감도 가벼워져 간다. 전통적 저자의 문화가 황혼기에 이른 지금, 저자에 관한 짙은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저자 문화의 변성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을 반추해보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_저자 서문 중에서

저자 소개 | 김태환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독문학을 공부하고, 동대학 독어독문학과에서 소설 시점에 관한 연구(1996)로 박사학위를,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대학 비교문학과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학 연구(2000)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간지 『문학과사회』 편집동인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Vom Aktantenmodell zur Semiotik der Leidenschaften』 『푸른 장미를 찾아서』 문학의 질서』 『미로의 구조』 『우화의 서사학』 등을 썼고, 『변신/선고 외』 『모던/포스트모던』 『피로사회』 등 다수의 역서가 있다.